

운동 및 찬 공기 유발성 아나필락시스를 보인 한랭 두드러기 1례

전남의대 알레르기내과

김상훈 · 최인선 · \*이석 · 정성훈 · 서성례 · 문장식 · 한의령

겨울에 발생한 음식물 의존성 운동 유발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는 몇몇 보고가 있으나 현재까지 한랭 두드러기 환자에서 운동 유발 검사로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증명한 보고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저자들은 한랭 두드러기 환자에서 유발검사로 운동과 한랭 유발성 아나필락시스를 세계 최초로 증명하여 보고한다. 24세 남자가 내원 5년 전에 냉탕에 들어가 목욕하다가 전신 가려움증이 생기면서 의식을 잃어 타병원에서 한랭 두드러기로 진단 치료 후 호전되었는데, 1년 전 9월 저녁시간에 운동장을 뛰다가 다시 전신 가려움증과 동반하여 의식을 잃었고, 이후 찬물 샤워 때나 찬 공기 노출 때 두드러기가 자주 생겨 내원. 온탕에서는 증상이 없었음. 혈청 총 IgE 1,230 IU/mL, 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 D. farinae, 게, 새우, 호밀 피부단자시험에 양성, 자가혈청 피부시험은 음성. Cryoglobulin 음성, 한랭 응집소 음성. 얼음조각시험에서 팽진 51.5×56.4 mm로 양성, 메타콜린 피내시험 음성. 약 20℃ 실외에서 6분 자유달리기 검사에서 두드러기성 구진, 어지럼증, 혈압 90/60 mmHg 발생. 폐기능은 정상. Cyproheptadine 등 약물치료 시작 후 한랭 두드러기와 운동 유발성 아나필락시스 증상은 없었다. 자극에 대해 민감한 어떤 한 장기에 증상을 보이는 아토피환자(국소 아나필락시스환자)는 자극이 더 강할 때 전신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녹내장 치료 중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독성표피괴사 1예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 내과

\*배윤정 · 박찬선 · 김태범 · 조유숙 · 문희범

배경 탄산 탈수 효소 억제제인 acetazolamide와 methazolamide는 sulfonamide유도체로 이뇨 효과뿐만 아니라 안압 하강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녹내장을 비롯한 다양한 안과 질환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dorzolamide는 국소 점안액으로 단독 또는 복용약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이들 약제의 과민반응으로 보고된 증례의 대부분은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며, 두 약물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국소 점안액과 함께 사용하여 발생한 예는 없었다. 저자들은 이들 약제의 복합 사용 후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독성표피괴사를 경험하였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33세 여자 환자가 구강 점막 미란, 우안 충혈 및 얼굴에서 시작하여 몸통과 사지로 진행되는 홍반성 발진으로 내원하였다. 내원 15년 전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을 진단받은 후 백내장과 당뇨 망막병증으로 치료 중이었고, 내원 3개월 전 우안 초자체 출혈, 망막박리가 발생하여 유리체 절제술, 수정체 유화술을 시행받았다. 수술 후 안압 상승으로 dorzolamide 국소 점안액을 사용하면서 10일간 acetazolamide를 복용하였고, 이후로 안압이 조절되지 않아 methazolamide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Methazolamide 복용 10일 후부터 오한 및 미열, 우안 충혈, 구강 점막의 미란이 발생하였고, 2일 뒤 홍반성 발진이 얼굴에 발생된 뒤 전신으로 진행하였다. 내원 당시 39.1℃의 발열과 구강 점막의 미란과 양안의 각결막염 및 전신의 다형 홍반이 관찰되었고, 일부 병변에서는 수포성 변화가 의심되었다. 말초 혈액 검사는 정상 소견이었으나, 혈청 화학 검사상 BUN 57mg/dL, Cr 2.4mg/dL로 신전성 신부전이 동반되어 있었다. 흉반에서 시행한 조직검사에서는 표피의 괴사와 표피하 수포형성 소견과 혈관주위 염증세포 침윤 소견을 보였다. 입원 후 methazolamide 투여를 중지하였고 전신적 스테로이드제 치료를 시작하였다. 입원 2일째 전신에 수포성 병변이 관찰되면서 Nikolsky's sign 양성 소견이 나타났으며, 5일째부터는 기존의 수포들이 박피되기 시작하여 전신의 30% 이상의 피부가 침범되어 독성표피괴사로 진단하였고, 중환자실로 옮겨 스테로이드제를 중단하고 면역글로불린을 정주하였다. 이후 피부 병변은 계속 진행하여 전신의 80-90% 정도까지 침범되었다가 점차 안정되었고 일부 피부는 재생되어 상피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환자는 내원 10일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